21일 '석탄일' 부터 3일간 황금연휴

전남 관광·휴양지 '예약 끝'

해외여행객도 폭주

오는 21일 '석가탄신일'부터 3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되지만 정작 여행객들이 놀러갈 곳은 없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전남지역의 유명 관광·휴양지 숙박시설은 이미 1개월여 전에 예약이 끝났고, 해외여행 상품도 모두 마감됐기 때문이다.

금호화순리조트의 경우 21~22일 이틀간 220개 객실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평소에도 주말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지만 이번 예약은 이미 1개월 전에 끝났다. 하루에도 수십통의 예약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남아있는 객실이 없다.

구례송원리조트도 마찬가지다. 연휴 첫날 21일 예약은 이미 끝났고 22일 역시 조기에 예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보성다비치콘도는 21일~22일 예약손님이 가득 찼다. 81개의 객실 예약이 모두 끝난 후에도 하루 10통 이상씩 방을 구하려는 전화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교통편도 지난달 예약이 끝났다. 항공편은 물론 목포와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선박편도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우성이다.

연휴를 맞아 유명 섬도 방문객들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21·22일 여수여객터미널에서 하루에 두번 나로도를 거쳐 거문도로 출항하는 340석 규모의 여객선은 예약률이 90% 이상이다. 광주~제주간 비행기, 목포~제주 배편 티켓도 동이 난지 오래다.

해외여행 수요도 폭주하고 있다. 국내·외 여행전문업체 하나투어에 따르면 오는 20일과 21일 동남아시아·중국·일본 등지로 떠나는 3박5일, 4박5일 여행상품은 이미 동이 났다.

비교적 짧은 연휴탓에 먼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국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예약을 마친 손님 대부분이 가족단위 여행객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3월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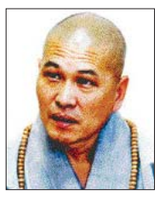
한편 황금연휴를 맞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의 고향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8시 용산발 광주행 500석 규모의 KTX 열차표는 매진됐으며, 오후에 출발하는 열차만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월 어머니상' 수상자 선정

지선 스님·카치아피카스 교수·광주간호사회

내일 시상식


지선 스님

카치아피카스교수

올해 '오월 어머니상' 수상자로 지선스님과 조지 카치아피카스(George Katsiaficas) 미국 웬트위스공과대학 교수, 광주간호사회 등이 선정됐다.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은 6일 "지선스님은 5월 정신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조지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5월 관련 논문과 저서를 발표해 5월 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해 수상자로 했으며 1980년 당시 부상자 구호에 노력했던 광주간호사회를 단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월어머니집은 오는 8일 오월어머니집 개관기념일에 오월어머니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오월 어머니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시민을 찾아 공로를 위로하고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2007년도에 제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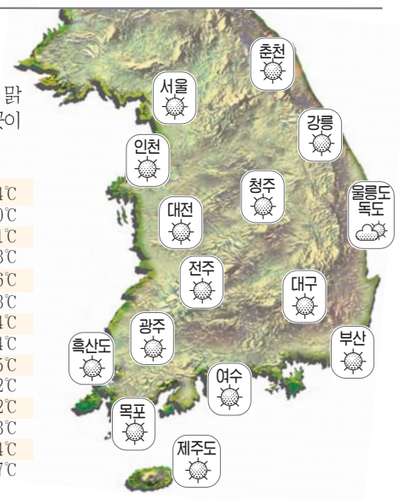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6분 해짐 19시 23분 달뜸 01시 40분 달짐 12시 59분

"덥다, 더워!"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구름 끼는 곳이 있겠다.

광 주	맑음	11/24℃
목 포	맑음	11/20℃
여 수	맑음	12/21℃
완 도	맑음	11/23℃
구 례	맑음	9/26℃
해 남	맑음	9/23℃
장 흥	맑음	9/24℃
고 흥	맑음	10/24℃
순 천	맑음	11/25℃
영 광	맑음	9/22℃
진 도	맑음	10/22℃
전 주	맑음	9/23℃
남 원	맑음	8/24℃
흑산도	맑음	12/1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밀물	썰물
목포	08:28 20:52	01:24 14:48
여수	04:03 16:35	10:37 22: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날 씨						
최저/최고	12/27	12/27	13/20	10/22	8/22	8/23

민간위원 참여…검사장급 내주 소환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검사 스폰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검찰 외부인사가 참여한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6일 서울고검에서 2차회의를 갖고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7명이 조사를 지켜보거나 피조사자를 면담하고 현장 검증에 동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간 위원들은 우선 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검사들과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를 조사단이 대질신문할 때 돌아가면서 조사를 참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조사단이 현직 검사 26명을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이 현직 50여명과 전직 50여명 등 총 1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인사의 조사는 다음주에 실시하고 곧 전직 검사들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객

하루 40명 예약 받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지리산 칠선계곡을 찾으려는 탐방객들의 예약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칠선계곡은 10년간 출입이 통제됐다가 2008년 다시 개방됐으며 올해는 5~6월과 9~10월에 하루 최대 40명만 탐방할 수 있다.

칠선계곡을 찾으려는 이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에코투어 누리집(http://ecotour.knps.or.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연합뉴스

'5·18 행사' 15~18일 금남로 교통통제

광주시, 기획단 구성

광주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행사준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는 6일 "최현주 자치행정국장을 행사지원본부장으로 행사준비기획단을 꾸려 행사의 홍보와 주요 방문 인사 의전, 교통 및 소방대책 등 6개 분야에 걸쳐 5·18 30주년 행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5·18 행사지원 관계자 회의를 열어 수송차량 지원과 주요 행사장 경유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변경, 도로 및 교통표지판 정비, 급수 봉사 등 분야별 지원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직자 헌혈 운동, 주먹밥 나누기 행사 등 5·18 관련 자체행사도 마련한 광주시는 5·18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홍보탑과 현수막,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기념행사를 홍보하기로 했다.

또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해 17·18일 5·18 자유공원에서 광주시청~유스퀘어~광주역~옛 전남도청~국립 5·18민주묘지를 경유하는 임시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15일부터 4일간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서 금남공원까지 시간대별로 교통이 전면 통제되거나 부분 통제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식중독 주의보

한여름보다 5~6월에 많아

연중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5~6월을 맞아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동향을 분석한 결과 5~6월에 평균 68건, 293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여름철인 7~8월의 65건, 1209명보다 더 많은 것이다. 월평균 식중독 보고건수는 6월이 39건으로 가장 많으며 8월과 9월이 각각 37건과 33건으로 빈번했다. 6월에 발생한 평균 환자 수는 연평균 2001명으로 비교적 환자가 많은 5월(931명)과 9월(960명)의 두배가 넘었다. 5~6월에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는 이유는 단체관광과 야외수련활동이 많기 때문이라고 식약청은 분석했다.

/연합뉴스